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대박행진

개막 11일만 작년 입장수입 '돌파' 유료 입장수입 7억 1556만 원 기록

2019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개막 11일 만에 지난해 입장수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개막한 함평 국향대전이 개막 11일차인 지난 28일 유료 입장수입 7억 1556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올렸던 총 입장수입 7억 1500만 원을 갱신했다.

이날까지 방문한 총 입장객 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6000여 명 늘어난 18만여 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인원이 찾았던 지난 2017년 24만여 명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장수입의 경우 지난 2010년부터 10년 연속 6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던 지난 2017년 8억여 원 돌파는 물론, 입장료 수입으로만 3년 연속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축제를 찾은 발걸음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 농·특산물 등 축제장 내 현장 판매액은 같은 날 8억 5600여만 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억 4천여만 원 더 거뒀다.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생태



공원 등 축제장 인근 관광지도 예년보다 2~3배 많은 입장수입과 매출을 올리면서 역대급 흥행 물이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과 11일 만에 입장수입 7억 원을 돌파한 것은 역대

국향대전 사상 최초"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더 친절한 서비스, 보다 좋은 관람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진도 겨울 대파왕' 선발한다

내달 23일 금골커뮤니티센터 일원서 개최

겨울 대파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진도군이 '진도 겨울 대파왕'을 선발·시상한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고품질 대파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가를 선발하고 진도 겨울 대파의 명성을 유지하고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진도 겨울 대파왕을 선발한다.

군은 오는 11월 23일 금골커뮤니티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년 금골마루 진도 약대파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진도 겨울 대파왕을 선발할 계획이다.

진도 겨울 대파왕 선발 품평회는 오는 11월 5일까지 읍면별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읍·면 자체 심사와 포전정밀 심사를 거쳐 진도 약대파 축제 당일 진도겨울대파왕 심사위원회 심사

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진도겨울대파왕 1명 10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7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 장려상 3명 각 30만원의 진도아리랑상품권과 메달을 시상할 계획이다.

진도 겨울대파는 타 지역산보다 육질이 단단해 요리하기 편리하고 향이 강해 음식의 잡내 제거 등에 효과가 좋아 각종 식재료로 인기가 많다.

특히 진도 겨울대파는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황화이황이란 성분을 함유해 기관지 질환에 좋고, 혈액순환을 도와 수족냉증 및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능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 아주 좋은 식품이다.

진도=조상용 기자



영암군,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

영암군은 최근 군청 남산실에서 조사요원 33명을 대상으로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올해 시행되는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전자조사(CAPI) 전면 도입으로 종이 조사표 없이 태블릿 PC를 이용해 이뤄지며, 신기술 도입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되어 현장조사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지침과 현장조사 요령은 물론 태블릿 PC 사용 매뉴얼 및 사례 중심 실습을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되어 조사원의 호응도가 높았다.

전동평 군수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는 내년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조사구 설정 및 표본틀 제공 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11월 6일부터 실시되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에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군, 친환경유기단지 벗짚환원 친환경농법 정착

유기전환기·유기인증 필지 237ha 벗짚환원 추진

강진군이 농가를 대상으로 추수 후 벗짚 불태우기를 저해하는 한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논에 벗짚 썰어 넣기 등을 통한 지역 증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규산의 요구도가 높는데 벗짚은 유기물과 규산이 풍부해 토양으로 환원해 주면 지력을 상승시켜 벼 생육과 등숙률(남알이 영그는 비율)을 높일 수 있고 올해처럼 태풍에 의한 비바람에도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또 논에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잡초 발생을 억제하고 농지의 유기질 함량을 높여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벗짚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벗짚에 들어있는 유기물이 토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부족한 지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 농가에서는 과도한 비료 살포를 할 수밖에 없다. 비료 살포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토양 구조가 산성화되어 결국에는 지

력이 약화돼 농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강진군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벼 중 유기전환 중인 무농약 인증 필지와 유기인증 필지 237ha에 벗짚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ha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지원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 실시

주민 보호조치 훈련 집중

무안군은 29일 영광군 소재 한빛 원전에서, 한빛원전 5호기 방사능누출사고를 가정하여 중앙부처,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2019년 한빛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빛원전 인근 해역에 발생한 지진(규모 7.5)과 해일 등의 영향으로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원전 사고 수습, 방사선 비상진료, 환경방사선 탐사 등의 훈련이 진행되며 무안군에서는 주민 보호조치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주민 보호조치 훈련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인 송계마을 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버스로 이동 구호소(무안스포츠파크)로 대피하는 훈련이다.

훈련은 차량제독, 주민 오염검사, 입소등록, 비상시 주민이 꼭 알아야 할 프로그램 운영, 재난구호 물품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유관기관, 주민 등 16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원안위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협업·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전적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수료식

완도군은 지난 24일, 완도군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종료하고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에 맞는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총 60시간), 전남도 지정 교육기관인 목포YWCA를 통해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총 16명의 건강관리사를 배출하게 됐다.

건강관리사는 도서지역 거주자, 결혼이주여성 등을 포함,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도서 및 다문화가정 등 산후 조리 여건이 취약한 산모에게도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한 수료생은 "수료증 취득은 물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어 뜻깊은 교육이었다."며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만 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산모가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산후 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550-6753)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